

## 차별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성 IMPORTANCE OF SHOWING NO FAVORITES

By Adrian Savedra

오늘날과 같은 치열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편향적으로 행동하기 쉽다. 예를 들면 관심사가 같은 직원에게 더 호의적으로 대하거나, 자신과 의사소통 방식이 비슷한 사람을 승진시키거나, 단순히 “잘 통한다”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향적인 태도는 사내 분위기를 해치고 사기와 생산성을 저하하는 독소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In today's competitive business environment, it is easy to fall into the trap of showing favoritism. Whether gravitating toward employees who share our interests, promoting those who mirror our communication style, or giving choice assignments to people we simply “connect” with, workplace partiality can create toxic environments that diminish both morale and productivity.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 지침에 대해서라면, 오늘날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성경보다 더 좋은 지혜를 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야고보서 2:1-4 말씀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When looking for guidance regarding workplace relationships, there is no better place to look than the Bible, which offers timeless wisdom for modern business leaders. James 2:1-4 directly addresses this challenge:

*“My brothers and sisters, believers in our glorious Lord Jesus Christ must not show favoritism. Suppose a man comes into your meeting wearing a gold ring and fine clothes, and a poor man in filthy old clothes also comes in. If you show special attention to the man wearing fine clothes and say, ‘Here’s a good seat for you,’ but say to the poor man, ‘You stand there’ or ‘Sit on the floor by my feet,’ have you not discriminated among yourselves and become judges with evil thoughts?”*

야고보는 주로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원칙은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하다. 우리는 사람의 외적인 특성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면서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야 한다.

James speaks primarily about treatment in the Church, but the principle applies equally to our workplace interactions. God's standard is clear – we are to treat all people with equal dignity and respect, regardless of their external characteristics or circumstances.

신명기 10:17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비즈니스 리더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싶다면 이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그 어떤 편향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으신다면, 우리 역시 편향적인 행동을 정당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Deuteronomy 10:17 gives a powerful description of God's character: *“For the Lord your God is God of gods and Lord of lords, the great God, mighty and awesome, who shows no partiality and accepts no bribes.”* As business leaders seeking to reflect God's character, this verse should shape our leadership approach. If the Creator of the universe shows no partiality, how can we justify showing favoritism?

사도 베드로도 이것을 강조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행전 10:34-35).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소수의 어떤 특정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깨달으면서 했던 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사람들의 능력을 인정할 때, 개인적인 호감이나 가벼운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력, 인격, 성과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The apostle Peter reinforced this truth: *“I now realize how true it is that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but accepts from every nation the one who fears him and does what is right”* (Acts 10:34-35). This statement came as Peter recognized God's message was for all people, not just a select few. Our workplace opportunities and recognition should also be based on merit, character, and performance, not personal preferences or surface-level connections.

잠언 28:21 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작은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원칙을 벗어나 타협하는지를 보여주며,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리스도인 비즈니스 리더로서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Proverbs 28:21 warns, *“To show partiality is not good—yet a person will do wrong for a piece of bread.”* This sobering reminder acknowledges how easily we can compromise our principles for small gains or conveniences. As Christian business leaders, we must remain vigilant against this tendency.

모세의 예를 생각해 보자. 그는 이렇게 명령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레위기 19:15). 특권 계층에게든 사회적 약자에게든, 어떤 집단에게든 편향성을 보이는 것은 정의를 왜곡하고 조직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이다.

Consider the example of Moses, who instructed, *“Do not pervert justice; do not show partiality to the poor or favoritism to the great but judge your neighbor fairly”* (Leviticus 19:15). Showing favoritism to any group – whether privileged or underprivileged – distorts justice and undermines organizational integrity.

직장에서 차별이나 편애의 결과는 단순히 순간적인 사기 저하에 그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직원 몰입도 감소

- 높은 이직률
- 다양한 아이디어와 관점 배제로 인한 혁신 감소
- 법적 책임 및 평판 손상
- 신앙인으로서 리더 증언에 영적 무게 손상

The consequences of workplace partiality extend beyond immediate morale issues. It can lead to:

- Decreased employee engagement
- Higher turnover rates
- Reduced innovation as diverse perspectives are marginalized
- Legal liability and reputation damage
- Spiritual compromise in our leadership witness

## 묵상과 토론

###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비즈니스 현장에서 차별이나 편향적인 대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 예를 나누어 주세요.

Have you observed any examples of favoritism or partiality being displayed in the marketplace? If so, give an example.

2. 현재 직장이나 이전 직장에서, 차별이나 편향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때 어떤 기분이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말해 보세요. 당신은 그 경험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른 누군가에게 알렸나요?

Do you feel you have ever been a victim of partiality or favoritism where you work, or places you have worked previously? If you have, how did it make you feel? How did you respond – did you make anyone aware of the impact it had on you?

3. 앞서 차별이나 편향적 대우가 발생하는 원인을 언급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그런 원인이나 다른 원인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지, 또는 아니라면 왜 그렇지 않은지 나누어 주세요.

Possible causes of favoritism are mentioned? Do you believe that any of these – or other reasons are ever justified? Why or why not?

4. 성경은 하나님이 차별이나 치우침 없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사도행전 10:34). 이 점에 대해 의심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너무 잘 풀리거나 커리어에서도 발전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푸신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The Bible clearly states that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or partiality, that He is “no respecter of persons” (Acts 10:34, KJV). Have you ever doubted that, or felt at times that He was showing favor toward some people in how they prospered or advanced in their careers? Explain your answer.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구절을 참고하세요.

NOTE: If you have a Bible and would like to read more, consider the following passages:

**출애굽기 23:2-3; 잠언 24:23-25; 말라기 2:9; 야고보서 2:9, 3:17**

Exodus 23:2-3; Proverbs 24:23-25; Malachi 2:9; James 2:9, 3:17

- **(출애굽기 23:2-3) 2**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3**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어 두둔하지 말지니라
- **(잠언 24:23-25) 23**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낮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24**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25**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 **(말라기 2:9)**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 **(야고보서 2:9)**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 **(야고보서 3:17)**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 이번 주 도전 Challenge for This Week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싶다면,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디모데전서 5:21)

As we strive to build healthy organizational cultures, we should remember Paul's words to his protégé Timothy: *“I charge you, in the sight of God and Christ Jesus and the elect angels, to keep these instructions without partiality, and to do nothing out of favoritism”* (1 Timothy 5:21).

이 엄중한 명령은 리더십 실행 방식이 단지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를 반영해 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 사람이 크리스천 리더로서 전하는 말의 진정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번 주에는 평소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편파적 대우를 한 적은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 멘토나 신뢰할 만한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This solemn charge can serve as a reminder that our leadership practices reflect not just on ourselves, but also on our witness as Christian business leaders. It would be good to take some time this week to evaluate our own attitudes. Perhaps even asking a mentor or some trusted friends whether they have seen any favoritism or partiality in our interactions with others.

※출처: **CBMC INTERNATIONAL**

※번역 및 편저: 서진희 <기독교전문 서적 번역가, 제 21 회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번역, 영어프렌드 미국원어민 온라인 어학원 대표>